

忠武公 李舜臣 北方遺蹟 南·北·露 共同調査 方案 研究*

백 중 오**

국문초록

이 글은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의 공동조사 방안에 대해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 고고학 조사 방안을 제시한 후 그간의 남북 공동조사와 한러 발굴조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남·북·러 공동조사의 실현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 본 것이다.

이순신 북방유적은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함경도 삼수의 동구비보, 경원의 건원보, 경흥의 조산보와 녹둔도 등이 대표적이다. 또 조산보 소속의 봉수 및 연대인 남산봉수와 두리산봉수, 불암수호, 고봉수호, 고조산수호, 하단수호 등도 이에 해당한다. 주변 鎭堡인 경흥진, 서수라보, 무이보, 아오지보, 아산보, 안원보, 경원진 등도 향후 함께 考究할 대상이다.

이 중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와 조산보는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이순신이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한 역사적 현장이다. 또 1860년 북경조약 체결로 상실한 조선의 영토이기에 더욱 애잔하다. 때문에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녹둔도와 조산보 등의 역사적인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첫 단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남북 공동조사는 개성 만월대 고려궁성 발굴조사 외에는 미진한 편이다. 한·러 발굴조사 또한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시·공간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순신 북방유적의 남·북·러 공동조사는 문화교류와 학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모두의 민족 영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동조사는 녹둔도 토성, 조산보와 승전대 등 관련 유구에 대하여 합의된 조사 매뉴얼에 따라 하강조사와 탐색트렌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구의 전모를 파악한 다음, 별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러 발굴조사를 시작하고, 러시아측 조사단이 북측 고고학자들을 발굴 현장에 초청하여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공동조사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이어서 남북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러시아를 매개로 한 국제 협력 사업으로 확대시킨다면,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이순신, 녹둔도, 조산보, 두만강, 함경도, 북방유적, 공동조사

* 본 논문은 2020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본고는 필자가 책임연구원으로 수행한 2018년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추진방안 연구」를 대폭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둠).

**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jopae@ut.ac.kr

— | 목 차 | —

I. 머리말

III. 李舜臣 北方遺蹟 共同調査 方案

II. 李舜臣 北方遺蹟 學術調査 方法

IV. 맺는말

I. 머리말

李舜臣(1545~1598)은 선조 9년(1576)에 실시된 式年試 武科에 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權知訓鍊院奉事와 함경도 童仇非堡 權管, 충청도 병마절도사 군관, 鉢浦 水軍萬戶, 乾原堡 權管, 司僕寺 主簿, 造山堡 萬戶 겸 鹿屯島 屯田事宜, 井邑縣監, 珍島郡守, 加里浦僉節制使 등을 역임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직전인 1591년에 남해안의 방비를 위해 全羅左道 水軍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이 중 동구비보, 건원보, 조산보, 녹둔도 등은 함경도의 최전방 지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순신의 북방 임지이다. 특히 선조 16년(1583)에 녹둔도에 둔전을 실시하였으며¹⁾ 동왕 20년(1587)에 조산만 호 겸 녹둔도 둔전사의로 재직할 때 여진족이 기습하여 조선군 11명이 죽고 160여명이 잡혀갔으며 말 15필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²⁾ 이 사건으로 咸鏡道 北兵使 李鎰은 ‘賊胡가 녹둔도의 木柵을 포위했을 때 군기를 그르쳤다’는 장계를 올린 후 이순신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조정에 건의하였다. 이때 선조는 이순신을 杖刑에 처하고 白衣從軍하도록 명하였다. 이순신은 이듬해 여진족 본거지인 추도 정벌에서 여진족 장수 于乙其乃를 사로잡는 공을 세워 사면·복직하게 되었다. 이순신이 처음으로 백의종군한 역사적 무대가 녹둔도와 조산보인 것이다.

鹿屯島(Noktundo, 러시아어 Ноктундо)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였던 섬으로 조선시대에 왜구와 여진족을 방비하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청이 러시아에 넘겨 주었다.³⁾ 현재 러시아 沿海州(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바다와 접해 있다’)와 육지로 연결되어 섬의 형태는 없어지

1) 是歲設慶興 鹿屯島[豆滿江入海處] 屯田, 從巡察使鄭彥信議也, 府使元豪主之. 島近江北岸, 人馬通行, 胡落至近, 乃設柵, 置吏若干人. 防戍單弱, 土人憂之. (宣祖修正實錄』17卷, 宣祖 16年 12月 1日 己酉(1583)).

2) 賊胡陷鹿屯島柵. 島屯之初設, 隸南道關額軍, 爲耕夫, 適歲歉不獲. 是年以造山萬戶李舜臣, 專掌其事, 秋大稔. 府使李慶祿率軍吏, 與舜臣監刈. 楸島 胡酋 于乙應介, 傳箭於慶源境胡落, 藏兵潛伺, 見農民出野柵空, 猝入圍住, 縱兵大掠. 守護將吳亨、林景藩等, 突圍入柵, 皆中箭死. 于乙應介跳塹而入, 爲戍將李夢瑞所射殺. 賊胡殺十餘人, 擄百六十人而去. 慶祿、舜臣率兵追擊, 斬賊三級, 奪還五十餘人. 兵使李鎰欲歸罪舜臣, 以自解, 設刑具, 將斬之, 舜臣自辨: “前見兵少備單, 報請益, 而兵使不從, 有公牒在.” 鎰囚以聞, 命白衣從軍, 立功自贖. 上悼戍兵死沒, 命湖堂賦詩致悼. 自是, 屯田罷, 而論者咎彥信失策矣. 舜臣從軍巡邊使麾下, 誘捕反虜于乙其乃, 遂免罪, 自此有名. (宣祖修正實錄』21卷, 宣祖 20年 9月 1日 丁亥(1587)). 北兵使馳啓曰: “賊胡圍鹿屯島木柵時, 慶興府使李慶祿, 造山萬戶李舜臣, 失誤軍機, 戰士被殺十名, 被虜一百六名馬十五匹. 貽辱國家, 李慶祿等囚禁事.” (宣祖實錄』21卷, 宣祖 20年 10月 10日 乙丑(1587)).

3)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후 초대 조선 주재공사인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13년간 두 차례에 걸쳐 주 조선 프랑스 공사로 근무했다. 콜랭 드 플랑시 공사가 1890년 6월 10일에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 소문(정치국 극동가 제157호)’에 관한 공문의 내용에는 1860년 베이징조약문에 녹둔도를 러시아에 양도한다는 문구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중략)...문제의 섬은 북쪽에 위치한 두만강(du fleuve Tumen) 어귀의 녹둔도(Nok-toun to)로 그 지역 수도인 블라디보스톡(Vladivostock)이며 소유권이 양도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협의한 청국 대표에 의하면 이 곳은 1860년부

고 ‘크라스노예 셀로(Красное Село)’라고 불리는 러시아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 1937년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기 전까지는 우리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했던 지역이었다.

그간 녹둔도와 조산보 등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해서는 역사·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⁴⁾ 이를 통해 한국사에 있어서 이순신 북방유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반추해 볼 수 있었다. 반면 고고학적 측면에서는 유적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3국의 민감한 국경지대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녹둔도와 나선시 일대에 남아있는 이순신 북방유적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 두만강 하구의 역사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국경을 접한 민감한 지역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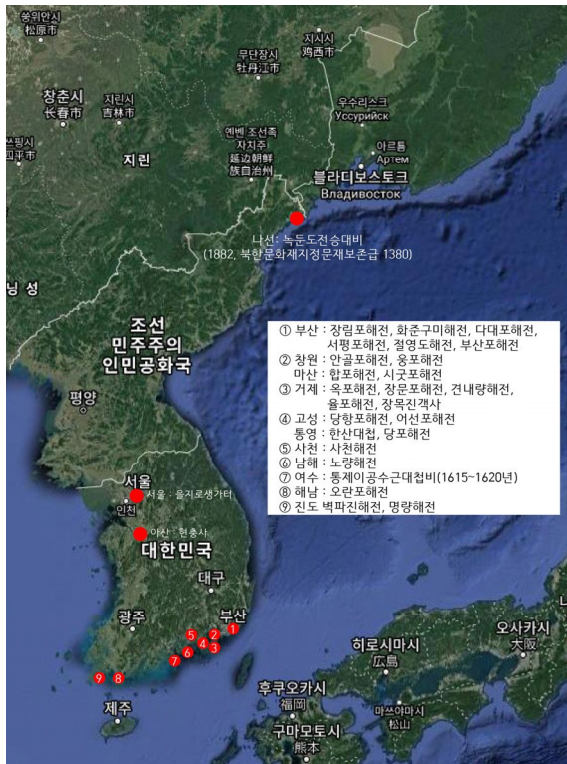
터 러시아 영토의 일부였으므로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정보는 현안으로 삼을 필요도 없으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조선 지도와 프랑스 선교사 지도 그리고 일본 참모부 지도를 참고한 결과 이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지도에 녹둔도는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60년 북경에서 이 그나티에프 장군(Gal Ignatiev)과 공친왕(Prince Kong)이 체결한 조약문에도 이 섬을 러시아에 양도한다고 명시한 구문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녹둔도가 조선에 귀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후 대륙과 분리되었던 두만강 어귀의 일부분에 섬의 모래가 축적되면서 대륙과 연결되어 이제는 시베리아에 붙은 일종의 곳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지만 이처럼 지형의 변화가 발생한 이후로 러시아는 자연 현상에 의해 대륙에 붙어버린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몇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해결책을 찾아 현 상황의 근본적인 우려를 종식할 수 있을까요?……”(『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 프랑스외무부문서⁴ 조선Ⅲ · 1890, 정치공문 1888~1896, 조선 1890 권3 콜랭 드 플랑시, [66]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 소문).

4) 녹둔도에 대한 주요 연구 성과물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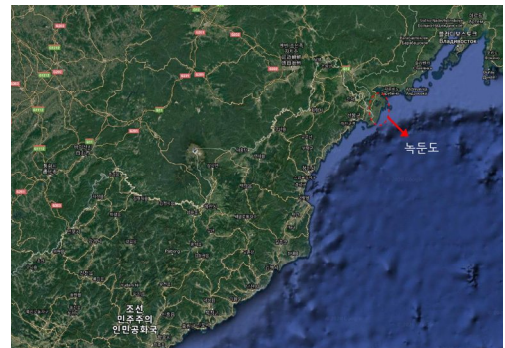
- 유영박, 「鹿屯島의 歸屬問題」, 『學術院論文集』 15, 1976.
- 양태진, 「韓露國境線上的 鹿屯島」, 『한국학보』 19, 1980.
- 유영박, 「藏書閣所藏 江左輿地記 論攷」, 『국학자료』 38, 1980.
- 양태진, 「韓露國境形成의 背景과 鹿屯島喪失」, 『白山學報』 26, 1981.
- 유영박, 「對淸關係에서 본 鹿屯島의 歸屬問題: 鹿屯島의 歸屬問題」, 『領土問題研究』 2, 1985.
- 金旻春, 「두만강하류역에 있어서의 국경분쟁」, 『동국사학』 19 · 20, 1990.
- 金得梲, 「조선의 北方疆界에 관하여」, 『白山學報』 16, 1992.
- 정태홍, 「北方國境線과 鹿屯島」, 『박물관지』 4, 忠淸專門大學 博物館, 1995.
- 이상근, 『韓人露領移住史研究』, 탐구당, 1996.
- 양태진, 「北京條約과 鹿屯島領屬問題에 관한 考察」, 『한국사연구』 96, 1997a.
- 양태진, 「沿海州 地域의 韓人移民과 鹿屯島의 領屬問題」, 『韓國北方學會論集』 3, 1997b.
-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인식』, 경세원, 2002.
- 노영돈, 「녹둔도의 노령화 과정과 그 현재적 의미」, 『白山學報』 73, 2005.
- 박병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논총』 4, 2005.
- 이왕무, 「俄國輿地圖에 나타난 조선의 러시아 영역 인식과 국경 상황」, 『북방사논총』 5, 2005.
- 이원명, 「조선중기 鹿屯島 확보와 北兵使 李鎰에 관한 고찰」, 『白山學報』 83, 2009.
- 반병률,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 하구의 한민마을 크라스노예 셀로(鹿屯島)의 형성과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10.
-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34: 1, 2011.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심현웅, 「러시아의 극동진출 전략과 국경을 둘러싼 조·러 양국의 대응」, 『군사』 56, 2015.
- 김진수, 「선조대(1587년) 녹둔도(鹿屯島) 전투에 대한 고찰」, 『軍史研究』 140, 2015.
- 손승호,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 『대한지리학회지』 51: 5, 2016.
- 양태진, 『우리나라 영토이야기』, 예나루, 2017a.
- 양태진, 『조약으로 본 우리땅 이야기』, 예나루, 2017b.
- 이동희, 『근대동아시아 외교문서 해제 2: 러시아편』, 선인, 2017.
- 백종오, 「남·북·러의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내일을 여는 역사』 75, 2019.
- 백종오,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의 의의와 전망」, 『白山學報』 116, 2020.

만큼,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적인 공조가 더없이 요구되며 그러한 뒷받침이 없으면 남·북·러 공동조사는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두만강 하구 녹둔도에 대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등의 학술조사 방안을 정리한 후 두만강을 경계로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이순신의 북방유적의 남·북·러 공동조사의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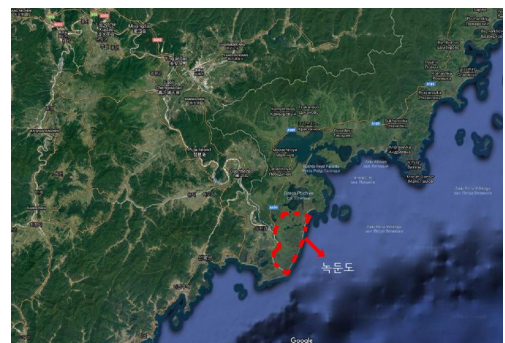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코비드 19의 팬데믹은 남·북·러 공동조사의 전망을 예측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그간 축적된 남북 공동학술조사와 한러 공동발굴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인 공동조사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남북의 영웅인 이순신의 북방유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 1〉 이순신 장군 관련 승전지 및 유적지(사진출처 : 구글)



〈도 2〉 녹둔도(사진출처 : 구글)



〈도 3〉 녹둔도 세부(사진출처 : 구글)

II. 李舜臣 北方遺蹟 學術調査 方法

이순신 장군이 승리한 주요 전투는 앞의 〈도 1〉에서 보듯이 임진년의 옥포해전(1592.5.7.), 당포해전(1592. 6.2.), 한산도대첩(1592.7.8.), 부산포해전(1592.9.1.)과 정유년의 명량대첩(1597.9.16.), 무술년의 노량해전(1598.11.19.) 등이 있다. 관련 사적으로는 海南 全羅右水營(사적 제535호), 여수 전라좌수영성지와 鎭南館(국보 제 304호), 統營 三道水軍統制營(사적 제402호), 莞島 廟堂島 李忠武公 遺蹟(사적 제114호), 閑山島李忠武公遺蹟(사적 제113호)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忠南 牙山에는 李忠武公墓(사적 제112호)와 李忠武公遺墟(사적 제155호)가 있다. 이충무공묘는 아산시 음봉면 삼거리에 위치하는데 김육과 이이명이 지은 신도비와 묘비 등이 남아 있으며, 이충무공유하는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에 있는 顯忠祠의 사역으로 고택과 충무공이순신기념관이 있다. 유품들은 현충사 소장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국보 제76호, 지정 명칭 李忠武公亂中日記附書簡帖壬辰狀草)와 李舜臣 遺物一括(보물 제326호, 장검 2자루·옥로 1점·요대 1벌·도배 및 잔반침 1쌍 등), 統營忠烈祠八賜品一括(보물 제440호, 都督印 1점·虎頭令牌 2점·鬼刀 2자루·斬刀 2자루, 督戰旗 2폭·紅小令旗와 藍小令旗 各 2폭·曲喇叭 2점 등 8종 15점) 등이 있다.

또 이순신의 전적지에는 海南 鳴梁大捷碑(보물 제 503호, 1688년),⁵⁾ 麗水 統制李公 水軍大捷碑(보물 제 571호, 1615년, 全羅左水營大捷碑)와 墮淚碑(보물 제1288호, 1603년), 制勝堂遺墟碑, 統制營忠烈祠記, 古今島遺祠記 등이 세워져 있다.

사묘는 선조 34년(1601)에 건립된 麗水 忠愍祠(사적 제381호), 광해군 6년(1614)에 건립된 統營 忠烈祠(사적 제381호), 숙종 32년(1706)에 건립된 牙山 顯忠祠(사적 제155호), 順天 忠武祠(전남 문화재자료 제48호) 등에 배향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남한의 이순신 유적은 1970년대부터 전적지 성격화 작업을 거쳐 많은 유적들의 정비가 진행된 상태로 역사교육의 장과 국민 관광지로 꾸며져 있다. 승전지나 사적지 등은 국가 사적으로, 유품이나 전적비, 기념비 등은 국보나 보물 등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한편, 함경도와 두만강 하구의 이순신 북방유적은 문헌에 기록된 삼수의 동구비보,⁶⁾ 경원의 건원보,⁷⁾ 경

5) 이비는 1942년 여수 타루비와 함께 서울로 운반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가, 해방 후 해남 유지들의 수소문으로 경북군 근정전 앞뜰 땅속에서 수습되어 지금의 위치에 다시 세워졌다.

6) 『鶴峯全集』 鶴峯逸稿 3卷 北征日錄(1579년 10월 16일)에 기록된 童仇非堡를 보면 “(1579년 10월 16일) 새벽에 어면보를 출발하여 강가의 자갈길을 지나서 동구비보에 도착하였다. 동구비보는 강 언덕에 있는데, 나무를 엮어서 성을 만들었다. 土兵 5·6명과 南軍 30명이 들어와서 防戍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활을 쏘 줄도 모르니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면 한 성채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 것이다. 慈作仇非는 동구비보에서 동북쪽 강변으로 10여 리 되는 지점에 있는데 지형이 자못 험하므로 軍民들이 보를 여기에 옮겨 설치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곧바로 말에 올라 보를 옮기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보니 과연 지세가 편리하였다. 만약 여기에 城堡를 옮겨서 설치한다면 방어하기에 매우 편리할 뿐만 아니라 토병들의 생업 또한 동구비보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동구비보에서 三水郡까지는 적들이 왕래하는 길이 세 곳이나 있다. 동구비보를 5리쯤 지난 강변에 평평한 언덕이 있는데 新坡坡로 부르며 강 북쪽 끝짜기는 石門이라 불렀다. 석문에서 강 자갈길을 따라 10리쯤 가면 한 둔덕이 있는데, 자작구비라 부른다. 자작구비에서 몇 리를 돌아가면 麻谷이라는 데가 있다.”라고 하였다.

7) 『新增東國輿地勝覽』 慶源都護府條에 따르면 “경원부의 동쪽 45리에 있으며, 正德 병자년(1516)에 돌로 쌓았는데 성의 둘레가 1,458척, 높이가 7척이었다. 權管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또 『制勝方略』에는 “동쪽으로 아산보와의 거리가 25리이고 안원보와의 거리는 24리이고 경원진과의 거리가 1식 25리이다. 성의 둘레는 1,815척이다. 여장이 37곳이고 웅성

흥의 조산보⁸⁾와 녹둔도⁹⁾(〈도 2, 3〉 참조), 승전대비와 승전봉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순신이 조산보 만호로 있을 때 조산보 소속의 南山烽燧와 豆里山烽燧, 佛巖守護, 高峯守護, 古造山守護, 下端守護 등도 포함된다. 이들 주변의 鎭堡인 慶興鎭, 西水羅堡, 撫夷堡, 阿吾地堡, 阿山堡, 安原堡, 慶源鎭 등과 봉수 및 연대 유적인 서수라 우암봉수, 구신포봉수, 망덕봉수, 포항현봉수, 서봉봉수, 동봉봉수 등이 서로 응하고 있다. 이처럼 이순신 북방유적은 관방유적이 중심이고, 지리적으로 두만강하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두만강 하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주도하에 두만강 하류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국제경제 특구개발구상이 1991년 10월 15일~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두만강지역 개발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두만강 개발계획은 북한의 나진,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1,000km²의 소삼각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개발계획이 알려지면서 중국 훈춘을 거쳐 방천까지 답사가 가능해졌다. 즉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드는 하구에 위치한 녹둔도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녹둔도와 조산보는 여진족과 왜구를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조선시대 북방 변경 관리의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1937년 조선인들이 강제 이주되기 전까지 조선인 마을이 번성하였다. 그 당시 녹둔도가 우선적으로 폐쇄되었으며,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의 흔적이 많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간 녹둔도는 조선시대 이후 작성된 지리지와 지도류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고, 두만강 하구의 퇴적과 유로 변경에 의한 지형 변화가 심해 그 범위와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때 녹둔도의 위치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世宗實錄地理誌』의 ‘沙次麻島’,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關北誌』 등의 ‘棚’과 ‘土城’에 대한 기사이다. 즉, 책과 토성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당시 녹둔도의 위치를 확정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들 토성의 흔적은 일본 근세 지형도의 ‘城場’ 표기 지역, 서울대 지리학과와 추정 토성지가 既 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추정 유적에 대한 정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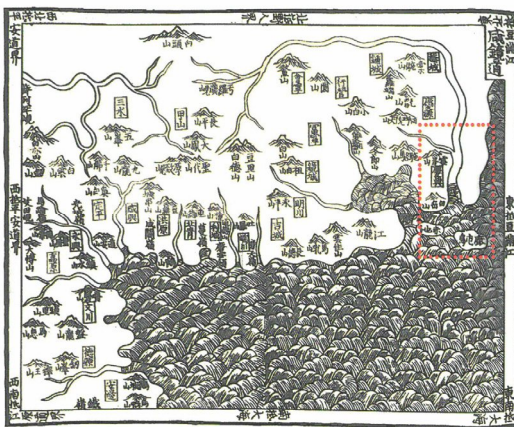
이 2곳이고 곡성이 7곳이다. 동문과 서문이 있다. 泉井이 2곳이다. 토병이 58명이고 남쪽에서 부방하는 군사가 42명이다. 弓子가 334張, 長箭이 625部 8分, 片箭이 622부이다.”라고 하였다(김구진·이현숙(역), 『국역 제승방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29쪽).

8) 『鶴峯全集』 鶴峯逸稿 3卷 北征日錄(1580년 1월 18일)에는 “새벽에 中堂에 나와서 해돋이를 보았다. 식후에 北城으로 나와서 해안을 지나 石門을 넘었다. 造山 앞 10리쯤에 오니 강 너머에 鹿屯島가 보인다. 녹둔도는 조산보에서 동쪽으로 5리 되는 곳에 있다. 두만강이 조산 동북쪽에 와서는 두 줄기로 갈라져 흐르는데 한 줄기는 東南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가고 한 줄기는 南으로 흘러서 바다에 들어간다. 그 북편이 하나의 큰 들판이 되었다. 들판은 거의 100여 리의 넓이가 되며 기름진 전답이 눈길 닿는 데까지 끝없이 펼쳐졌다. 전에 이 섬에 木柵을 설치하였다. 3월 초하루가 되면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10월 초하루에는 조산으로 돌아오는데 이를 入鰲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풍년이 들어 변경 군사들의 식량이 충분하였는데 이용 거도에 보를 설치하여 호인들과 틈이 생긴 뒤부터는 포로로 잡혀갈까 염려하여 지금까지 농사짓는 것을 금하였다고 한다. 섬에 들어가 10여 리를 가다가 예전에 목책을 설치했던 곳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풀을 깔고 앉아서 군사와 말을 조금 쉬게 하였다. 그런 다음 곧바로 말에 올라 강을 건너서 조산보에 들어갔다. 이날 이곳에서 묵었다.”고 나와 있다. 또 『制勝方略』에는 “북쪽으로 경흥진과의 거리가 35리이다. 그 사이에 豆里山과 長蛇大帖이 있고 남쪽으로 서수라보와의 거리가 35리이다. 성의 둘레가 병술년(1586)에 새로 쌓았는데 1,622척이다. 여장이 120곳이고 웅성이 5곳, 곡성이 2곳이다. 남문과 북문이 있다. 泉井이 2곳이고 池이 1곳이다. 토병이 48명이고 남쪽에서 부방하는 군사가 30명이다. 궁자가 244장, 장전이 840부 19개, 편전이 932부 28개이다.”라고 하고 있다(김구진·이현숙(역), 앞의 책, 1999, 10쪽).

9)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경흥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鹿屯島農堡로 기록되어 있다. 沙次磨島라고도 불리웠으며 경흥부 남쪽 56리에 있었다. 흙으로 쌓았는데 둘레는 1,247척, 높이 6척이다.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에서 造山浦까지가 20리 인데 兵船이 있고 造山萬戶가 관장하였다. 여름에는 본포의 수군이 여기에 나누어 주둔한다고 한다.

학술조사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료를 수합하는 사전조사, 현지답사를 통한 지표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발굴조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事前調査



〈도 4〉 「동남도」의 함경도 지도(16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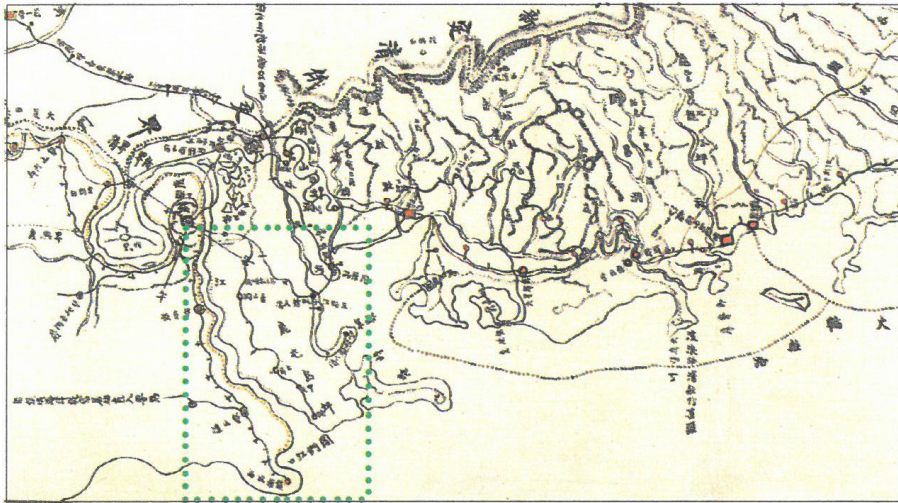
〈도 5〉 「대동여지도」(1861년)의 녹둔도



〈도 6〉 「해동지도」 경흥부(1750년대초)



〈도 7〉 「조선후기 지방지도」 경흥부(1872년)



〈도 8〉 「아경지도」(19세기 후반)

사전조사는 문헌 기록과 기존 조사성과의 검토, 지형과 환경 조사 등으로 분류된다. 먼저, 문헌조사는 유적에 관련된 기본자료인 『朝鮮王朝實錄』, 『日省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편년 자료¹⁰⁾와 『谿谷集』, 『亂中雜錄』, 『燃藜室記述』, 『再造藩邦志』, 『鶴峯全集』, 『與猶堂全書』, 『北路紀略』, 『朝鮮時代私選邑誌』 등의 개인 문집류,¹¹⁾ 일본 외무성기록, 주한일본공사관문서 및 통감부 문서, 러시아국립 해군성문서, 프랑스 외무부문서 등 근대 문서,¹²⁾ 근현대 잡지¹³⁾ 등을 검색하고 「鹿堡破胡碑」, 「戰勝臺碑」,

10)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편년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錄』 155권, 지리지 합검도 김주목 경원 도호부; 92권, 세종 23년 1월 29일 정묘; 121권, 세종 30년 8월 27일 경진. 『世祖實錄』 2권, 세조 1년 8월 10일 계축. 『成宗實錄』 188권, 성종 17년 2월 22일 무술. 『中宗實錄』 8권, 중종 4년 4월 29일 경인; 10권, 중종 5년 3월 5일 경신; 21권, 중종 9년 10월 13일 임인; 98권, 중종 37년 5월 21일 신축. 『宣祖實錄』 17권, 선조 16년 12월 1일 기유; 21권, 선조 20년 9월 1일 정해. 『宣祖實錄』 21권, 선조 20년 10월 4일 기미, 선조 20년 10월 10일 을축, 선조 20년 11월 21일 병오, 선조 20년 12월 26일 경진, 선조 20년 12월 28일 임오; 22권, 선조 21년 1월 10일 갑오, 선조 21년 7월 1일 임자. 『宣祖修正實錄』 23권, 선조 22년 4월 1일 정축. 『宣祖實錄』 84권, 선조 30년 1월 27일 무오; 187권, 선조 38년 5월 29일 임인. 『孝宗實錄』 8권, 효종 3년 5월 16일 병술. 『日省錄』, 정조 5년 신축, 12월 24일 임진. 『承政院日記』 고종 20년 1월 28일, 고종 20년 10월 4일, 고종 40년 9월 23일. 『備邊司謄錄』 97책, 영조 11년 3월 7일(음); 163책, 정조 5년 12월 25일(음).

『新增東國輿地勝覽』 제50권, 함경도, 경흥도호부. 『輿地圖書』 하, 함경도(관북읍지), 함경남도 영흥부읍지, 학교; 함경도(관북읍지), 함경북도 경흥도호부읍지, 고적; 함경도(관북읍지), 함경북도 무산부읍지, 산천. 『從政年表』 권3, 고종 20년 계미, 上之即位二十年, 三十六歲, 正月, 十月조.

11) 이순신 북방유적에 관한 문집류는 다음과 같다. 『谿谷集』 제13권, 碑銘, 李公神道碑銘. 『亂中雜錄』 1, 정해년. 『白沙集』 제4권, 遺事, 故 統制使 李公의 遺事. 『象村集』 제34권, 說, 備虜說. 『燃藜室記述』 제18권, 宣祖朝故事本末, 선조조의 명신; 별집 제8권, 官職典故, 鎭堡; 별집 제16권, 地理典故, 摠地理; 제17권, 邊圉典故, 鎭·堡; 별집 제18권, 邊圉典故, 북쪽 변방. 『愚伏集』 제20권, 行狀, 韓公浚謙行狀. 『林下筆記』 제13권, 文獻指掌編, 물의 祖宗 열둘. 『潛谷遺稿』 제13권, 神道碑銘, 李忠武公 신도비명. 『再造藩邦志』 1. 『澤堂集』 별집 제10권, 行狀 하, 좌의정 李公의 시장. 『鶴峯全集』, 학봉일고 제3권, 북정일록, 경진년 1월 18일 무오. 『弘齋全書』 제12권, 序引 5, 翼靖公奏藁財賦類叙. 『龍洲遺稿』 제21권, 神道碑, 右議政柳庵鄭公神道碑銘 并序. 『與猶堂全書』, 大東水經 2, 滿水 2.

12) 근대문서류는 다음이 참조된다. 日本外務省, 「日本外交文書: 鹿屯島關係祕密文書」, 第14, 15号(1980년 7, 8월): 「鹿屯島關

「申位淸邊碑」등 금석문과 『北關遺蹟圖牒』의 「守柵拒敵圖」, 「莊襄公征討時錢部胡圖」, 『俄國輿地圖』의 「鹿屯島圖」 등의 기록화 등도 수집하여 정리한다. 다음의 <도 9>는 1587년의 녹둔도 사건을 묘사한 「守柵拒敵圖」이고 <도 10>은 녹둔도 사건의 이듬해에 단행된 시전부락 정벌도인 「莊襄公征討時錢部胡圖」이다. 비록 후세의 기록화이긴 하지만 녹둔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또 「東覽圖」, 「東輿備考 地圖」, 「北關地圖」, 「大東輿地圖」,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俄國輿地圖」, 「俄境地圖」 등 고지도¹⁴⁾의 城池, 鎮堡, 官衙, 驛站, 倉庫 등의 표식을 다른 고지도와 비교하여 그 변화 관계 등을 시기별로 파악해야 한다. 이순신 북방유적과 관련된 이일, 신립, 정언신, 이경록, 선거이 등과 함께 김시민, 권율 등의 인물 탐구도 필요하다.



<도 9> 북관유적도첩 - 수책거적도(18세기)



<도 10>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1849년 현종15)

그리고 국내외의 연구 성과물을 검색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타 기관에서 조사한 보고서 기록 등을 확보한 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적 환경을 정리한다. 일제강점기 이래로 해당 지역과 그 주위의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 발굴조사, 실측조사, 자료목록, 근세 지도류¹⁵⁾ 등이 그 대상이다. 지형조사는 기본적으로 수치 지형

係文書(李鍾學 藏), 1881~1890 : 日本外務省, 『鹿屯島關係綴錄』(明治 19年 11月~23年 9月). 『統監府文書』 2권, 一. 十三道及間島豆滿江位置沿革, (6) 豆滿江邊六鎮位置沿革; 2권, 一. 十三道及間島豆滿江位置沿革, (7) 西北邊界沿革及交涉案.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4 조선Ⅲ·1890, [66] 러시아의 조선 보호국화 소문;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4 조선Ⅲ·1890, [79] 조선 정부의 차관 도입 계획에 대한 청국의 반대 및 르장드르 장군의 실패 14권, 프랑스외무부문서4 조선Ⅲ·1890, [108] 상해 후파오지의 조선 관련 기사 내용 참조.

13) 『서우』 제14호, 1908년 01월 01일, 李舜臣, 『개벽』 제22호, 1922년 04월 01일, 萬古의 精忠=李舜臣先生, 十大 偉人 紹介의 其九, 『동광』 제23호, 1931년 07월 05일, 李忠武公行錄(上) 필자 李芬(原著), 李光洙(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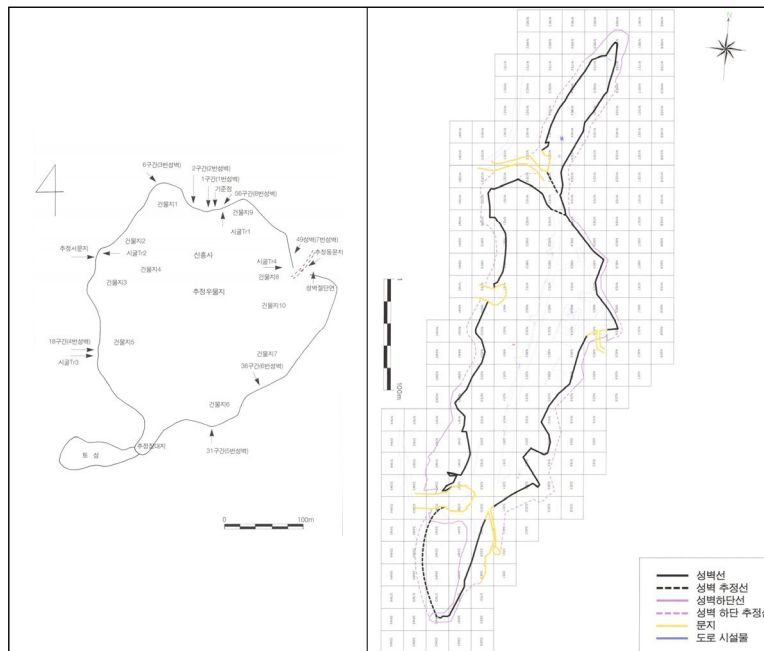
14) 「關北地圖」, 「廣輿圖」, 「東覽圖」(咸鏡道), 「東輿備考 地圖」, 「北關地圖」, 「備邊司地圖」(慶興府), 「西北彼我兩界萬里一覽之圖」, 「輿地圖書」(慶興府 地圖), 「遙薊關防圖」, 「朝鮮女眞兩界境界圖」, 「朝鮮八道地圖」, 「八道地圖」(咸鏡道), 「咸鏡道全圖」, 「海東地圖」(慶興府), 「俄國輿地圖」, 「俄境地圖」.

15) 日本軍參謀部, 『滿洲十萬分一圖西二行北五段琿春十八號-造山里』, 1907年 測度, 1934年 修正測度(關東軍測量隊), 1936年 改版(陸地測量部).

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朝鮮交通圖 朝鮮五萬分一圖』, 1915~1944 : 「古邑洞」, 「西水羅」, 「慶興」, 「新阿山」, 「雄基」, 「羅津」,

도와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두만강 하구와 주변의 대략적인 지형과 환경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녹둔도와 조산보의 지형을 축척 1/25,000, 1/50,000 등 수치 지형도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근대 지도와 비교해야 한다. 한국전쟁 전후의 항공사진과 최근의 위성사진 등은 성곽, 봉수, 그리고 이와 연계된 교통로 연구에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2. 地 表 調 査



〈도 11〉 이천 설성산성(11-1)과 파주 월룡산성(11-2) 구간 설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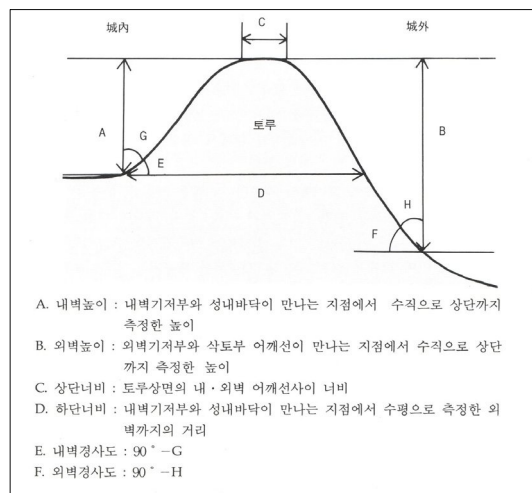
성곽의 지표조사는 조사범위와 그 방법론을 먼저 정해야 한다.¹⁶⁾ 금번 녹둔도 토성과 조산보 등과 같은 관방유적의 조사범위는 성곽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진다. 성곽 외부는 성벽 외측 하단에서 20m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만약 해자가 확인되면, 해자 외측 가장자리에서 20m 가량을 직접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 조사방법은 우선 성내 주요 유구별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성내·외 전체를 그리드 방법(Grid method)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위의 〈도 11-1〉과 같이 이천 설성산성은 성내 주요 유구나 시설물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성벽은 계곡부나 곡간부의 동편을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정 구간을 나누어 조사한 경우이다. 전통적으로 축성은 성내 최저지점의 동편에서 시작하여

1926年 7月(1917年 測度).

16) 김호준·강형웅·강아리, 「고대산성의 지표조사 방법」, 『야외고고학』 4, 2008.

동, 북, 서, 남 등의 순으로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또 <도 11-2>에서 보듯이 파주 월룡산성 지표조사¹⁷⁾는 유적 전반에 그리드를 설치한 사례이다. 지표상에 특별한 유구나 시설물의 징후가 포착되지 않을 때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아울러 그리드에 따라 유구나 유물의 정확한 노출 상태와 공반 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며 발굴조사로의 전환시에도 구획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속성이 담보된다. 조산보는 석성이기 때문에 석축 성벽과 성내·외 시설물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듯 하며, 녹둔도 토성의 경우 성내·외를 포괄적으로 구획하는 그리드 방법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성벽은 내외 공간을 구분 짓는 육축구조물이다. 축조재료에 따라 크게 목축과 토축, 석축, 전축 등으로 대별되며 세부적으로 토심석축, 토석혼축, 토석병축 등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 자연절벽이나 암반도 포함된다. 이들 성벽에는 개구부를 둔 城門과 甕城, 성벽 위에 낮은 담인 女牆, 성벽을 성외로 돌출시킨 雉城, 성벽 밖의 해자 등을 시설하여 방어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성벽의 지표조사에서는 성의 규모나 둘레를 계측할 때 그 기준이 필요하다. 즉 성의 외벽이나 내벽 아니면 그 중간 등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토성은 토루의 중간부를, 석성은 성벽 상면의 외벽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녹둔도 토성과 조산보 석성도 이들 기준이 참고 된다고 할 수 있다. 토루의 계측은 다음의 <도 12>와 같이 평택 관방유적(I·II) 정밀지표조사 조사보고서¹⁸⁾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성벽 상면의 여장과 함께 투석용 석재무지와 투석기 등의 흔적도 지표조사 단계부터 신중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도 12〉 토축 성벽 실측 방법 모식도
 (이인숙·백종오, 1998, 『平澤 關防遺蹟(I)』, 轉載)

다음으로 성벽과 성내·외 시설물이다. 雉城(城頭)은 성벽이 성외로 각지게 돌출한 형태를 말하고, 반원형으로 돌출하였을 때는 曲城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치성은 성벽에 접근하는 적을 감시하며 동시에 적을 삼면에서 방어할 수 있도록 돌출된 구조물이다. 주로 화살의 사거리마다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산성의 경우 능선과 성벽이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한다. 이들 치성은 시설되는 지점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치성이 성문 옆에 있을 때는 敵臺, 치성이 성벽 회절부의 모서리에 있을 때는 角臺 또는 角樓, 치성 위에 화포를 설치하면 砲樓, 수성군의 막사로 쓰면 鋪樓 등으로 명칭이 달라진다. 이들 시설물은 조선시대 읍성이나 산성 등에 주로 시설되는데, 적대와 웅성, 연대 등은 세종 20년(1438)에 ‘築城新圖’ 반포에 따라 보편적으로 시설

17) 이현재 외, 『月籠山城』, 경기도박물관, 2004.

18) 이인숙·백종오, 『平澤 關防遺蹟(I)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京畿道博物館,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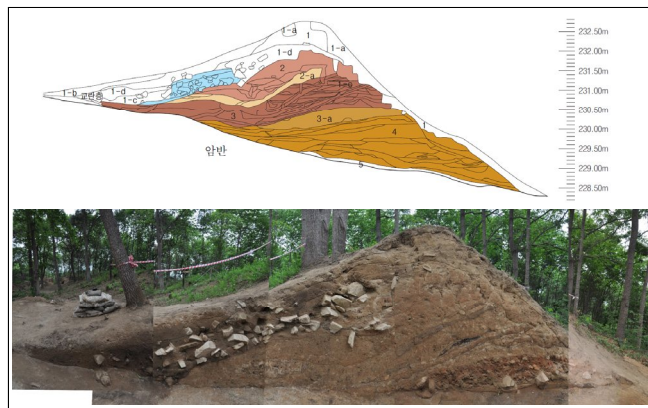
백종오 외, 『平澤 關防遺蹟(II) 精密地表面調査報告書』, 京畿道博物館, 2004.

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⁹⁾ 물론 금번 조사대상인 조산보나 녹둔도 토성에도 시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垓子(垓字, 海子)는 성의 주위를 따라 도랑을 돌려 방어력을 높이는 시설이다. 도랑을 파는 인공해자와 강이나 하천을 이용하는 자연해자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물이 흐르거나 고인 것을 壕나 垓子라 부르고 물이 없는 도랑을 隍이나 乾壕라고 한다. 해자는 평지성이나 낮은 구릉성에는 효용성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인 경우에는 마른 도랑인 외황이나 건호가 많다.

그리고 성내 시설물은 장대지와 건물지, 주거지, 집수시설과 배수시설 등이 있다. 將臺는 城堡屯戍의 장수 지휘대를 말한다. 여기에서 將은 장수의 지휘소이며 臺는 군사를 조련하는 광장이다. 성내 최고지점이나 관측과 지휘가 용이한 지점에 설치하는데 전투시에는 지휘소로 평상시에는 성의 관리와 행정을 수반하는 장소로 이용된다. 지표조사시 성내·외의 지형을 조망하거나 집결하기 좋은 지점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로 기와 건물지나 초석 건물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외 장대와 성문 주변으로 軍餉庫나 軍器庫 등의 건물이 들어서며 곡간부나 계곡부를 중심으로 準帶水層이 형성되는 지점에 우물이나 집수지 등의 집수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3. 發掘調査

발굴조사는 지형측량과 조사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 지표조사시 세밀한 현황측량이 되었다면 그 전산화된 수치 도면과 좌표를 가지고 착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밀하게 현황을 측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토성의 하강조사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토축 성벽은 탐색 트렌치를 설치한 후 표토를 제거하여 유구 확인 및 확장 트렌치를 통해 주변 유구와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표토는



〈도 13〉 증평 추성산성 남성 내성 동벽 성벽

토루 상단에서 하단으로 제거하면서 성벽 상면의 여장이나 내환도, 판축구조물, 보강시설 등에 유의하며 하강한다. 토루는 중심토루와 기저부 석렬, 내피토루와 외피토루, 溝나 瓦積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탐색트렌치는 성벽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데, 이때 조사는 평면 정리 후 단면, 다시 평면 정리 후 단면을 되풀이하며 판축구조물이나 토층의 변화에 유의하며 반복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간 과정이 생략된 채 최종 단계인 단면 확인을 위해 성벽을 완전히 절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개조사

19) 심정보, 「읍성축조에 있어서 ‘축성신도(築城新圖)’의 반포 목적과 고고학적 검토」, 『文物研究』 22, 2012.

는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평면과 단면 조사의 최종 단계로 <도 13>과 같은 절개 단면이 남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트렌치의 너비는 잔존 토루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너비 1.5~2m 정도면 평면조사와 단면조사를 통해 층단식으로 하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토루의 규모가 크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너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이들 토루를 중심으로 성내외의 내황과 외황, 내외피 토루의 외적층 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장 트렌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도 14> 평택 용성리성 북벽 트렌치



<도 15> 평택 용성리성 북벽 외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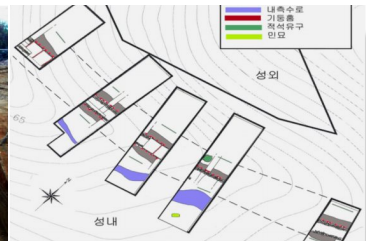
<도 16> 평택 덕목리성 기단석축



<도 17> 강화중성 중심토루 및
기저석렬



<도 18> 강화중성 중심토루 영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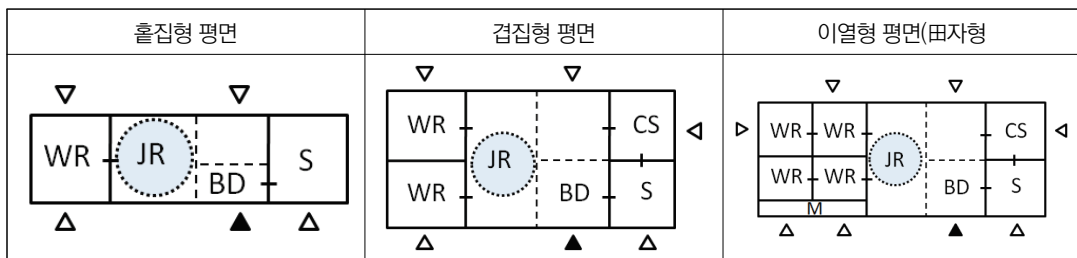


<도 19> 강화중성 확장 트렌치

따라서 성벽 축조 이전의 토층 흐름과 조축이나 수·개축 과정, 폐성 이후 퇴적 상태 등도 도면과 사진, 야장 등에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발굴조사의 관건은 土心 다시 말해 땅의 마음을 어떻게 상세히 읽어내는가이다. 이러한 토층 상태를 정확히 그리고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이 모든 발굴의 기본이다. 여기서부터 고고학이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벽 축조 이전과 이후의 층위 변화와 수·개축 과정속에서의 토층 등을 정확하게 기록에 남겨야 한다. 도면 또한 현황 측량을 통해 조사지역 전체의 평단면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성벽의 평면과 입면, 단면을 실측한다. 트렌치의 단면은 기존 한쪽 단면도 작성보다는 양쪽 단면을 모두 실측하며 내외벽의 평면도와 입면도 등도 작성해야 한다. <도 14~19>에서와 같이 트렌치 설정, 제토 후 외황, 중심토루와 기저부 석렬, 기단 석축, 확장 트렌치 설치 방법 등이 참고 된다.

요즘은 3D 스캔이나 사진 측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중요한 유구나 토층은 수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성내 건물지와 주거지도 시굴조사를 통해 지하 유구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우선 확인하고 유구가 검출

되지 않으면 생토면까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유구의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면 그리드를 유지할 지 아니면 유구의 축선을 중심으로 진행할지는 사전 판단이 요구된다. 시굴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유구는 전면 제토하며 하강하는데 이때 유구의 중복관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건물지의 경우 하부 지정, 기단과 축대, 적심과 초석, 출입시설 등의 현상 파악에 주력하며 이들 구조만이 아니라 출토유물을 통한 건물지의 조성과 개축과정, 건물지의 성격 등도 규명해야 한다. 조선시대 주거지는 평면이 원형인 수혈주거지가 대부분이다. 표토 제거 후 굴광선을 찾아 독을 남기면서 하강조사 하는데 건물지와 마찬가지로 주거지의 중복 여부와 생활면의 사용 시기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도 20〉 함경도 지방형 민가주택의 평면구조(金日學, 2010, 주 20)의 논문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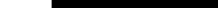
〈도 21〉 중국내 조선족 농촌 주거 형태(金日學, 2010, 주 20)의 논문 전재

아울러 조선족 농촌 주거를 대상으로 원적 구성별 공간적 특성과 주생활 행위를 분석한 연구²⁰⁾가 이번 논문도 토성의 건물지 조사에 참고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함경도 원적의 조선족 농촌주거는 정지중심형의 평면형태를 구성하며 두만강과 압록강 유역은 〈도 20〉과 〈도 21〉처럼, 함경도 전통민가의 주거 공간을 지속시키고 중-리 국경지역 및 흑룡강성 내륙지역은 함경도 전통민가에서 변형된 평면 형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함경도 지방형 평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공간 형태는 부엌과 직접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공간을 구성하며 온돌방으로서 취침, 식사, 단란, 접객, 가사노동 등 다양한 기능을 행한다는 점이다.

20) 金日學, 「中國 朝鮮族 農村居住空間의 特性과 變遷에 關한 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2010.

4. 小結

〈표 1〉 조사 일정표(안)

구 분	10일	20일	30일	비고
표토제거				
유구 정리 및 내부조사				
사진촬영 및 유구실측				
자문위원회의 준비, 개최				
정리작업 및 보고서 작성				

둘째, 지표조사이다. 현재 옥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하는 특성상 지형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초반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뒤 상황이 파악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어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토성의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답사 및 지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지 답사는 옥둔도 일대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지의 도로, 교통, 토지, 기후, 생활 모습 등

- 81 -

을 확인해야만 본격적인 고고학 조사 계획을 보다 세밀하게 수립할 수 있다. 지표조사는 토성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환경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표상의 성곽의 규모, 시설물, 유물 등을 파악하여 시·발굴조사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발굴조사 전, 남·북·러 삼국의 조사 매뉴얼을 파악한 뒤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기본적으로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참여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조사를 위해 먼저 벌목 및 지장물 등을 정리하며 측량을 통해 조사지역 전체와 유구 확인 구역별로 그리드를 구획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에서 앞서 트렌치를 설치하여 토층과 유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이해한 후 제토하도록 한다.

현장조사는 고고학적 조사방법에 따라 정밀하게 조사하며, 조사 중 유구가 확인된 경우 확인된 유구 주변으로 일정 면적을 확장해 단위 유구의 범위와 성격, 유구 현황, 유구층에 대하여 파악한다. 조사된 유구 및 유물에 대하여는 도면 작성 및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항공촬영, 드론, 3D 스캔 등을 활용할 계획이나 국경지대인 만큼 삼국간에 협의를 거쳐 적절하게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장 조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출토 유구와 유물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삼국의 합의 하에 유구의 해석과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발굴보고서는 현장 조사가 종료된 뒤 삼국이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과 고찰 그리고 발간 시점 또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李舜臣 北方遺蹟 共同調査 方案

1. 南北 共同調査 方案

(1) 既存 南北 共同調査 傾向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시작되었다. 1988년의 금강산 관광 실시로 금강산의 불교유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단초가 마련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4년에 걸친 복원공사 계획이 수립된 후, 2003년 대웅전 터를 대상으로 한 1차 시·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먼저 지표조사는 전적으로 남측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발굴조사는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차 및 2차 발굴조사에서는 남측이 발굴을 하고 북측이 참관 혹은 공동 조사 성격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3차와 4차 조사에서는 각각 구역을 나누어 발굴하고 상대측 조사지역을 참관하였으며 5차와 6차 조사에서는 남북 연구자들이 같은 지역을 함께 조사하였다. 발굴조사 이후 복원공사와 단청공사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굴조사단 이외 문화재 전문가들의 인적 및 기술교류를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고구려연구재단에서 2004년 6월부터 북측에 공동연구 및 공동조사를 제안하여 2005년 1월 공동학술사업추진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국제학술회의 및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가 기획되었다. 주요 조사대상은 평양 및 안악 일대의 벽화고분이며 대성산성과 평양성 등의 성곽유적도 포함되었다. 여기에 백두산 정계비도 추가로 답사하였다. 2005년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12일간 체류하면서 여러 벽화고분에 대한 촬영 및 실측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성과를 획득함으로써 고구려사 연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 중국의 동북공정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안학궁성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2005년 고구려 벽화고분, 대성산성, 평양성 조사에 이은 것으로서, 한 단계 진전된 연구 분위기 속에서 지표조사와 측량조사,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즉 안학궁성의 건물 초석의 주변을 시굴하거나, 동벽 기저부까지 조사하여 안학궁성의 축조방법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또 하나의 학문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 조사는 2006년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남측의 고구려연구재단이 북측의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문화보존지도국과 함께 실시하였는데, 짧은 조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연구자별로 각각의 분야를 전담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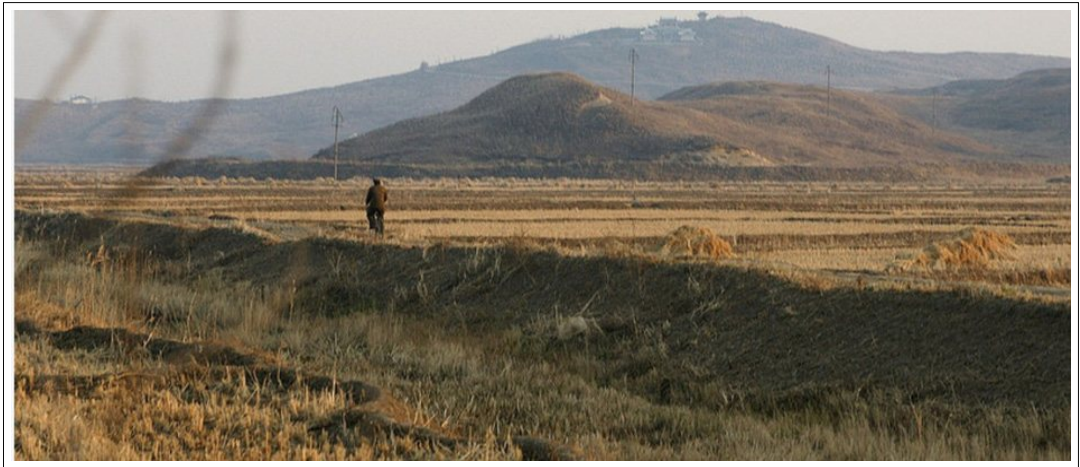
〈도 22〉 안학궁성 조사 모습 및 조사단

그리고 2005년 11월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개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에서 개성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조사를 제안하였고 2006년 1월 남측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6년 2월 북측은 개성지구의 역사유적 중 고려궁성인 만월대유적의 조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2006년 6월 개성역사지구 남북공동발굴조사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다. 그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발굴이 지연되다가 2007년 4월에 기존 합의서에 기초한 공동발굴의 추진을 재합의하였다. 2007년 5월 18일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8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약 40여 동의 궁궐 건물지와 금속활자, 청자, 기와 등 17,900여점의 유물을 수습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성 만월대 고려궁성에 대한 남북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함께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의 학술적 가치 규명 그리

고 남북간 화해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 의미는 지대하다고 평가된다.

(2) 向後 南北 共同調査 方案

북한은 함경북도 나선시의 이순신 유적을 국가적 차원의 보존공개유적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나선시 조산리의 조산진성(보존공개 483호)과 남산 모도마을에 소재한 ‘승전대비’²²⁾(보존유적 제1480호) 등이 있다. 북한의 문화재 명칭인 조산진성은 造山堡, 승전대비는 鹿堡破胡碑,²³⁾ 戰勝臺碑(『李忠武公全書』)²⁴⁾ 등으로 불리운다.



〈도 23〉 나선시 승전대 원경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kernbeisser/sets/72157663638582262/with/23905028574/>)

- 22) 이순신이 선조 20년(1587)에 조산만호 겸 녹둔도 둔전사의로 있을 때,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한 기념으로 영조 38년(1762)에 관북절도사 이관상이 건립하였다. 원래의 기념탑을 없애고 그 자리에 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승전봉이라는 봉우리 이름은 거기에서 유래하였다.
- 23) 鹿堡破胡碑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下, 1919).
- 嗚呼此即故忠武李公舜臣破蕃胡之所也萬曆丁亥公以造山萬戶兼鹿堡屯田官蕃 胡見屯田秋熟率其衆來圍木柵縱兵大掠公登鎮北三里許高峯以禦之伏奇兵於賊路日暮邀其歸放砲鳴鼓擊殺傷甚多賊大懼不敢近後人名其峯曰勝戰臺 宣廟壬辰倭亂大舉蕩我境 乘輿播越 宗社陷沒公首起討賊一破 於唐浦再破於閑山三破 於鳴梁公雖卒以身殉而賊勢挫衄不復振我東之得有今日實公之力也公忠誠貫日月 功烈銘彝鼎最爾一片之臺不足爲公之重輕而公之出奇殲賊已自小官始且朝廷之知 公用公 終樹不世之勳者實權輿於此有不可泯沒公之五代孫觀祥今爲關北節度使 石千里走書 丐余記其陰嗚呼殆古所謂水不忍廢地不忍荒者歟 嘉義大夫咸鏡道觀察使趙明鼎述 壬午 月 日立.
- 24) 戰勝臺碑(弘文提學趙明鼎 嗚呼 此故忠武李公舜臣破蕃胡之所 萬曆丁亥 公以造山萬戶 兼鹿堡屯田官 藩胡望見秋熟 率其衆來圍木柵 縱兵大掠 公登鎮北三里許高峯而禦之 伏奇兵於賊路 日暮邀其歸放砲鳴鼓擊之 殺傷甚多 賊大懼不敢近 後人名其峯曰勝戰臺 宣廟壬辰 倭寇大舉蕩我境 乘輿播越 宗社陷沒 公首起討賊 一破於唐浦 再破於閑山 三破於鳴梁 公雖卒以身殉 而賊勢挫衄不復振 我東之得有今日 實公之力也 公忠誠貫日月 功烈銘彝鼎 最爾一片之臺 不足爲公之重輕 而公之出奇殲賊 已自小官始 且朝廷之知公用公 終樹不世之勳者 權輿於此 有不可泯沒 公之五代孫觀祥 今爲關北節度使 亟治石 千里走書 丐余記其陰 嗚呼殆古所謂水不忍廢 地不忍荒者歟.

나선시의 이순신유적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는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7일 정도의 지표조사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보존공개 유적에 해당하는 만큼, 사전 지표조사를 통해 향후 발굴조사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다음에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서(의향서) 교환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 조사는 남북공동조사단이 현지를 방문하고 공동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유적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쌍방이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공동발굴조사를 제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조사 방법과 조사 범위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 지표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공동지표조사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조사의 순차적인 과정이 앞으로의 발굴조사시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 유념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발굴조사 중인 유적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관할하고 조사연구를 마친 유적은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이관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한다. 나선시의 이순신 북방유적은 당국이 ‘보존공개’ 유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때문에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소관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 당국이 자체 조사를 거쳐 보존공개 유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의 발굴조사 제안은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북한 관계자들은 나선시의 조산보와 승전대비, 연해주의 녹둔도는 모두 사안이 민감한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첫 단계부터 남·북·러 공동조사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나선시의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공동지표조사가 성사된 후 다음 단계로 러시아 학자들의 참여를 논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한·러간의 녹둔도 토성 발굴조사에 북한 학자들이 참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북한에서 남북교류를 담당하는 민족화해협회의의 소관 영역은 남북간 교류협력이다. 민족화해협회의의 입장에서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과 ‘나선시 이순신 북방유적 공동지표조사’, 러시아와 ‘녹둔도 이순신 북방유적 한·러공동발굴조사’로 나누어 동시 진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여겨진다.²⁵⁾

2. 南·北·露 共同調査 方案

(1) 既存 韓露 共同調査 傾向

우리나라는 구소련과 1990년 9월 30일에 수교를 맺었는데 중국보다도 2년 앞선다. 당시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학문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는 선사와 역사시대 모두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역 및 아무르-연해주 지역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수교 이전의 자료 수집을 비롯한 조사와 연구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한·러수교는 직접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했으며 학문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고고학계의 한국과 러시아 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발굴조사를 위한 기본토대는 1992년 대륙연구소

25)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나선-녹둔도 이순신 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추진방안 연구」, 2018, 149~152쪽.

에 의해 마련되었다. 1992년 1월 13일~17일에 대륙연구소 장덕진 회장은 중앙대학교 중국연구소 김성훈 소장과 러시아 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속학연구소(라린 소장) 간에 체결된 프로젝트(가칭 : 한·러 발해유적 공동발굴조사)를 대륙연구소로 변경함으로써 연해주의 발굴조사를 위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92년 2월 러시아 과학원 시베리아지소 고고학민속학연구소와 “문화재 상호교환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후 대러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고려학술문화재단 역시 1992년 7월 7일에 고합그룹 장치혁회장이 송기호(서울대학교)와 나선화(이화여자대학교)에게 연해주 발굴유적 조사를 제의하고 그해 8월 16일~23일에 연해주의 발굴유적 및 하바롭스크 지역을 답사하게 된다. 따라서 1992년은 한·러 학술교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해이며, 이후 한국 학자들에 의한 러시아 지역 유적 조사의 기본 구도가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발굴조사를 수행한 국내기관은 대륙연구소, 고려학술문화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구려연구회, 제주문화예술평화재단 문화재연구소, 고구려연구재단(現동북아역사재단),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이 있다. 대륙연구소는 연해주 발해와 여진의 유적을, 고려학술문화재단은 연해주의 말갈과 발해유적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아무르 강 하류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연해주의 신석기~초기 철기시대(옥저) 유적 그리고 아무르 강 중류지역의 중세유적을, 제주예술평화재단 문화재연구소는 아무르 강 중류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고구려연구회와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은 연해주의 발해유적을, 서울대학교는 연해주의 청동·철기시대 유적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연해주의 옥저·발해유적을 각각 조사하였다.

한·러 발굴조사는 1990년대와 2000년대, 2010년대 등 세 시기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 ① 1990년대는 한국과 러시아의 1990년 수교 이후, 1992년에 공동학술 및 발굴조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199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 조사는 민간기관인 대륙연구소와 고려학술연구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민간기관의 주도로 진행된 이 시기의 조사는 러시아와의 공동조사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 ② 2000년대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제주문화예술평화재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구려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부경대학교 등 비교적 다양한 기관들이 신석기~중세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을 연해주와 아무르 강 유역에서 발굴하였다. 이 시기 조사의 특징은 7개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했고 연해주를 벗어나 아무르 강 유역까지 확대하고 시기의 폭도 넓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립 기관이 발굴조사에 참여하여 계획성과 연속성을 갖추게 되었다.
- ③ 2010년대는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립 기관들 주도의 국외조사로 변모되고 있으며 그 대상 유적들도 제한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컨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콕사로프카-1 평지성, 동북아역사재단은 크라스키노성을 연차적으로 조사해 오고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발해유적지들로 성곽유적에 해당된다. 국립 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발굴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나 유적과 시기가 다양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 向後 南·北·露 共同調査 方案

남·북·러 공동조사는 러시아를 매개로 추진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 그간 중국 연변대학측이 남북 학술기관과 학술단체들을 동시에 초청하여 남·북·중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중간자를 매개로 설정하는 방식은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러시아 학술기관을 통해 남·북·러 공동조사가 실현된다면 유엔 제제나 미국 제제와는 별개로 지속적인 남북 학술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한다. 남북 교류의 중심은 지속성이 담보될 때 그 성과와 의미는 배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교류의 '持續性 維持'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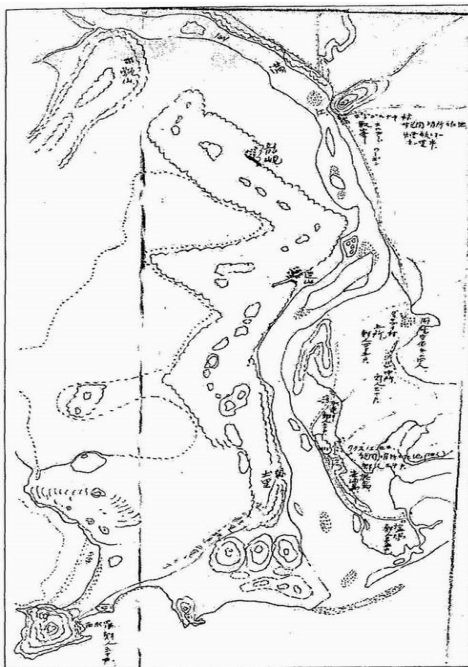
〈도 24〉 승전대와 조산보, 녹둔도 현황

아울러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에 위치한 녹둔도의 상징적 의미를 살려 양국간의 학술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녹둔도는 현실적으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삼국의 접경지대에 해당하며 민감한 안보 영역 속에서 엄격한 군사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공동 조사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둔도에는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조선시대 유적만이 아니라 여진족의 군사 방어시설물도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문헌에는 鹿屯島에 柵(『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制勝方略』, 『守柵拒敵圖』

등), 土城(『新增東國輿地勝覽』), 農堡(『東國輿地志』 1670, 『東輿備考』 1682, 『東輿圖』 1859 이전, 『大東輿地圖』 1861) 등 축조재료에 따른 목적과 토루로 구분하였으며 그 성격이 ‘적의 침입을 농민에게 알려주고 적을 막기 위해 농사를 짓는 들판에 설치’한 農堡라고 되어있다. 이는 시기별로 그 구조물이 다르게 축조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녹둔도의 중심지를 겸하는 토성 추정지에 대해서는 1907년에 일본육군 참모부에서 처음 측도한 후 1934년 관동군측량대에서 수정 측도한 「滿洲十萬分一圖-造山里」와 함께 1917년에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측도한 「朝鮮交通圖 朝鮮五萬分一圖-古邑洞」 지도가 참고된다. 이들 지도를 보면, 녹둔강 중간부에 녹도 글자 위로 ‘城場’이라 쓰여진 곳이 녹둔도 토성의 추정지에 해당한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함경북도와 러시아 연해주를 항측한 각종 군사지도에는 이곳을 ‘Sengi’라고 표기하였는데 이는 ‘城基’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 볼 때 녹둔도 중심지와 관련된 방어시설은 ‘城場’과 ‘Sengi’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근대 이후 군사시설물 설치와 같은 녹둔도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1860년에 청이 러시아와 베이징 조약을 맺으면서 무단으로 녹둔도를 넘겨주었을 때나, 1920년대 이후 소련군이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였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후 러시아는 2004년 북한 접경의 국경 강화를 이유로 녹둔도 남쪽에 제방을 쌓아 이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유적 공동조사는 조선 전기인 16세기만이 아니라 17세기에서 20세기에 대한 통시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한·러 공동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도 25〉 露·鮮國境地方 地圖(1911.9.18)²⁶⁾



〈도 26〉 녹둔도 토성 추정지(1926)

이를 위해 러시아측의 협력 및 러시아 학자들과의 공동조사는 물론 ‘이순신 북방유적 공동조사’의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 중앙정부 및 연해주 정부, 하산군 등 행정기관,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북방경제협력 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동북아-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동방경제포럼’의 개최지이고 극동의 한국학 중심인 극동연방대학과 러시아 사회과학원 시베리아 극동지부외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과거 한·러간 발해유적 공동 발굴조사 경험을 가진 러시아 사회과학원과의 실제적인 교류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재정지원으로 한국학 전공 교수가 포진한 극동연방대학 한국학과와 인문학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참여 유도가 요구된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은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과 학술교류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 구소련시 북한 동북지역 공동발굴의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시켜왔으며 최근 2016년에도 김일성종합대학 소속 고고학자들이 극동연방대학을 방문하는 등 북·러간 학술교류의 맥이 근근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동연방대학이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자들의 초청사업을 정책화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북측에 제기하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양 대학 간에 학술교류협력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현재 북측 학자들의 대외교류에 대한 의지가 높아서 초청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⁷⁾

따라서 녹둔도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러간 공동발굴조사로 시작하고, 러시아 극동연방대학측이 북측 고고학자들을 발굴 현장에 초청하여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들 공동조사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남·북·러 공동조사 일정표(안)

구분 \ 기간	조사기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국제학술 심포지움	■					3일
녹둔도토성 발굴조사	■	■	■	■		30일
녹둔도토성 자문회의				■		
조산보 학술조사				■	■	7~10일
녹둔도 주변유적 현황조사					■	5~7일

26) 『韓國近代史資料集成』9券 間島・沿海州 關係1. 三. 陸軍大佐齋藤季治郎北滿洲及露領浦鹽地方在住 朝鮮人ノ狀態視察一件 間島・哈爾濱及浦鹽總領事館員隨行之件 自明治四十四年四月(24) 露・清・鮮國境地方旅行復命書提出ノ件.

27)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앞의 글, 2018, 152~157쪽.

IV. 맺는말

지금까지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공동조사의 방안에 대해 사전조사와 지표조사, 발굴조사의 순으로 학술 조사 방안을 제시한 후 그간의 남북 공동조사와 한러 발굴조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남·북·러 공동조사의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방법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와 조산보 등 이순신 북방유적은 한국사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다. 임진왜란 발발 이전에 이순신이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한 역사적 현장이며 1860년 북경조약 체결로 상실한 조선의 영토이기에 더욱 애잔하다. 때문에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녹둔도와 조산보 등의 역사적인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첫 단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관계 변화와 함께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정세 속에서 남·북·러 삼국의 공동 학술적 조사는 문화적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을 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 공동조사는 개성 만월대 고려궁성 발굴조사 외에는 미진한 편이며, 한러 공동발굴조사 또한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시·공간적 다양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는 문화교류 및 학술적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모두 민족 영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의 역사 유적을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이해와 소통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공동조사는 녹둔도 토성, 조산보와 승전대 그리고 이들 유적과 관련된 건물지, 주거지 등에 대해 조사 매뉴얼에 따라 유구 성격과 지형 조건에 맞추어 하강조사와 탐색트렌치 조사를 병행하여 유구의 전모를 파악한 후 별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 한·러 공동 발굴조사, 남북 공동학술조사는 기 조사 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극동연방대학과 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김일성종합대학과의 연계방안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순신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러 공동조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러 발굴조사를 시작하고, 러시아측 조사단이 북측 고고학자들을 발굴 현장에 초청하여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를 성사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충무공 이순신 북방유적 공동조사는 기존에 진행되었던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이어서 남북 화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러시아를 매개로 한 국제 협력 사업으로 확대시킨다면,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谿谷集』(한국고전번역원)
 『慶興都府護邑誌』
 『慶興府邑誌』
 『關北邑誌』
 『關北誌』(윤정선 편저, 1859)
 『大同水經』(북한 과학원 고전연구소(역), 여강출판사)
 『大東地志』
 『東國輿地勝覽』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 구역 지도』(1931)
 『北關誌』(李端夏 편저)
 『北路紀略』(鄭允容, 1830년 추정)
 『備邊可謄錄』
 『世宗實錄地理志』
 『承政院日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東國文化社, 影印本(1991)
 『輿地圖書』
 『李忠武公全書』(이은상(역), 『(完譯)李忠武公全書』, 成文閣, 1989)
 『制勝方略』(김구진·이현숙(역), 『국역 제승방략』,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朝鮮半島 1/5萬 地圖集成』(學生社)
 『朝鮮時代私選邑誌』
 『朝鮮王朝實錄』
 『朝鮮八道地圖』
 『從政年表』
 『懲愆錄』(이재호 번역·감수, 『국역 징비록』, 서애선생 기념사업회, 2001)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 인식』, 경세원, 2002.
 경기도박물관, 『천년의 뿌리 龍仁 李氏』, 2013.
 慶興郡誌編纂委員會, 『咸鏡北道 慶興郡誌』, 1988.
 高承濟, 『韓國移民史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1973.
 국립문화재연구소, 『아무르·연해주의 신비』, 2006.
 국립문화재연구소, 『연해주의 문화유적 II』, 2007.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명량』, 2015.
- 國學振興研究事業推進委員會, 『俄國輿地圖』,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2007.
- 金得槐, 『만주의 역사와 간도문제』, 남강기획출판부, 2005.
- 金盛德 편저, 『咸北大觀』, 正文社, 1967.
- 김승화(정태수 편역), 『蘇聯韓族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9.
- 김시덕, 『그림이 된 임진왜란』, 학고재, 2014.
-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이화여대 출판부, 1985.
- 김우철 외(역), 『與地圖書: 咸鏡道 慶興郡邑府邑誌』, 흐름, 2009.
- 남만주철도주식회사, 『極東ノ聯要覽』, 北滿經濟調査所, 1940.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나선-녹둔도 이순신유적 남·북·러 공동조사 추진방안 연구」, 2018.
- 盧啓鉉, 『조선의 영토』(개정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1.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학민속학 연구소, 김재운(역), 『러시아 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 서경문화사, 2017.
- 민태원 외, 이지누 편, 『잃어버린 풍경 2, 1920~1940 백두산을 찾아서』, 호미, 2005.
- 박용석, 『러시아 연해지방의 경제와 투자환경』, 산업연구원, 1993.
- 박진환, 『극동러시아 농업과 자원개발』, 국제농업개발원, 2003.
- 裴祐晟,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1998.
- 白山學會 編, 『韓國의 北方領土』, 백산자료원, 1998.
- 비숍·이사벨라 버드(저), 신복룡(역),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2000(Bishop, I.B., 1897, Korea and Her Neighbor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 사브꾸노프, 예. 웨(저), 송기호·정석배(역), 『러시아 연해주와 발해역사』, 민음사, 1996.
- 서무송·서인명·서원명, 『지리학 삼부자의 중국지리답사기』, 푸른길, 2004.
- 서울대학교 규장각, 『古書와 古地圖로 보는 北韓』, 1991.
- 서울대학교 규장각, 『朝鮮時代 地方地圖』, 1995.
- 서울대학교 박물관, 『박물관 소장 두만강 유역 선사시대 유물 연구』, 2009.
- 송양섭, 『朝鮮後期 屯田 研究』, 경인문화사, 2006.
- 순천대학교박물관,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 활용 방안』, 2016.
- 申弼銖, 『松鶴 申弼銖 自叙傳』, 도서출판 키-워드, 2004.
- 심의섭·이광훈,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양태진, 『韓國의 國境研究』, 同知出版社, 1981.
- 양태진, 『한국의 국경사 연구』, 법경출판사, 1992.
- 양태진, 『近代韓國境論考』, 景仁文化社, 1999.
- 여호규·강현숙·백종오·김종은·정동민·이경미,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과 유물 X 송화강-목단강-두

- 만강 유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 오대양, 『북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와 고조선 연구』, 단국대 출판부, 2020.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이상근, 『韓人露領移住史研究』, 탐구당, 1996.
- 이상태,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1999.
- 이옥희, 『북·중 접경지역: 전환기 북·중 접경지역의 도시네트워크』, 푸른길, 2011.
- 李 燦 편저,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1991.
-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고려·조선시대 유적 관련에 대하여』, 2017.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 趙 珧, 「朝鮮後期の 邊境意識」, 『白山學報』 16, 백산학회, 1976.
- 통일원교류협력국, 「두만강지역 개발관련 UNDP기술조사단 타당성조사보고서」, 1991.
- 한국고지도편찬위원회, 『국토의 표상』, 동북아역사재단, 2012.
-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러시아과학원 극동지부 역사학고고학민족지학연구소·러시아국립극동연방대학 박물관,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에』, 2014.
- 한창균, 『북한 고고학 연구』, 해안, 2020.
- 許善道, 「制勝方略」研究(上)」, 『진단학보』 36, 진단학회, 1973.
-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0.
- 日本外務省, 「日本外交文書: 鹿屯島關係祕密文書」, 第14, 15号(1980년 7, 8월), 1890.
- 日本外務省, 『鹿屯島關係文書』(李鍾學 藏), 1881~1890.
- 日本外務省, 『鹿屯島關係雜綴』(明治 19年 11月~23年 9月).
- 長永義正, 『朝鮮人の間島』, 大阪屋號書店, 1932.
- 恒屋盛服, 『朝鮮開化史(全)』, 東亞同文會藏版, 1904.
- 金炘春, 「韓露國境線形成問題考」, 『현암 신국주박사 화갑기념 한국학논총』,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5.
- 金炘春, 「豆滿江 下流의 KOREA IRREDENTA에 對한 一考」, 『朝鮮時代 北方關係史 論攷』 2, 白山學會, 1986.
- 金炘春, 「두만강하류역에 있어서의 국경분쟁」, 『동국사학』 19·20,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990.
- 김경태, 「이순신의 북방 지역 활동에 대한 사료적 고찰」, 『역사와 담론』 90, 湖西史學會, 2019.
- 金得樞, 「조선의 北方疆界에 관하여」, 『白山學報』 16, 白山學會, 1992.
- 金日學, 「中國 朝鮮族 農村居住空間의 特性과 變遷에 關한 研究」, 한양대 박사논문, 2010.
- 김 원, 「두만강 개발계획의 가능성과 추진전략」, 『북한』 250, 북한연구소, 1992.
- 김진수, 「선조대(1587년) 녹둔도(鹿屯島) 전투에 대한 고찰」, 『軍史研究』 140, 육군군사연구소, 2015.

- 김태홍, 「두만강개발의 내용과 전망」,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 제7차 연례학술대회논문요약집』, 1991.
- 김학수, 「두만강유역 개발구상에 대한 논의와 전망」, 『정책연구』 93-05, 대외정책연구원, 1993.
- 김호준·강형웅·강아리, 「고대산성의 지표조사 방법」, 『야외고고학』 4, 한국문화유산협회, 2008.
- 盧啓鉉, 「두만강 녹둔도 영유권문제」, 『한국방송통신대논문집』 2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6.
- 노영돈, 「녹둔도 노령화 과정과 그 현대적 음미」, 『白山學報』 73, 백산학회, 2005.
- 민덕기, 「임진왜란에 활약한 조선 장수들의 성장기반에 대하여 - 니탕개의 난과 관련하여」, 『전북사학』 50, 전북사학회, 2017.
- 박병용, 「연해주를 둘러싼 한국과 러시아 영토문제: 1650년에서 1900년까지」, 『북방사 논총』 4, 고구려연구재단, 2005.
- 박준형, 「일로국경부근지도(日露國境附近之圖)의 발견과 의미 - 이순신이 활약했던 녹둔도(鹿屯島) 실측 근대지도」, 『白山學報』 117, 白山學會, 2020.
- 潘炳律, 「러시아의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한·러·중 국경지역 한인마을」, 『신동아』 46: 8, 동아일보사, 2003.
- 潘炳律,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연구』 2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 潘炳律, 「러시아 연해주 두만강하구의 한인마을 크라스노예 셀로(鹿屯島)의 형성과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54, 한국근현대사학회, 2010.
- 裴祐晟, 「古地圖를 통해 본 18세기 北方政策」, 『奎章閣』 18, 서울대 규장각, 1995.
- 백종오, 「북한학계의 문화유산 현황조사 탐색 - 1960년대~1980년대 역사유적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112, 백산학회, 2018.
- 백종오, 「남·북·러의 나선 - 녹둔도 이순신유적 발굴조사」, 『내일을 여는 역사』 75, 민족문제연구소, 2019.
- 백종오, 「이순신 북방유적 남·북·러 공동조사의 의의와 전망」, 『白山學報』 116, 白山學會, 2020.
- 송기호, 「연해주의 발해유적 연구동향」, 『아시아 문화』 12, 1996.
- 손승호, 「두만강 하구에 자리한 녹둔도의 위치와 범위」, 『대한지리학회지』 51: 5, 대한지리학회, 2016.
- 申承權, 「江左與地記, 我國輿地圖 解題」, 『江北日記 江左與地記, 我國輿地圖』, 정신문화연구원.
- 안재섭, 「두만강 하류지역의 토지이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8: 2, 국토지리학회, 2004.
- 양태진, 「韓露國境線上的 鹿屯島」, 『韓國學報』 19, 일지사, 1980.
- 양태진, 「한-러 국경 형성의 배경과 녹둔도 상실」, 『白山學報』 26, 白山學會, 1981.
- 양태진, 「두만강 하류지역의 '핫썬' 경제특구 설정결과 토자비에 관한 논고」, 『북한학보』 15, 북한학회, 1991.
- 양태진, 「연해주 지역의 한인이민과 녹둔도의 영속문제」, 『한국북방학회논문집』 3, 한국북방학회, 1997.
- 오대양,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 석관묘유적의 특징과 성격」, 『한국사학보』 74, 고려사학회, 2019.
- 柳永博, 「鹿屯島의 歸屬問題」,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5, 학술원, 1976.
- 柳永博, 「鹿屯島의 연육과정과 국경분쟁의 미결유산」, 『진단학보』 44, 진단학회, 1977.

- 柳永博, 「장서각 소장 강좌여지기 논고」, 『국학자료』 38, 장서각, 1980.
- 柳永博, 「對清關係에서 본 鹿屯島의 歸屬問題」, 『領土問題研究』 2, 1985.
- 유진삼·김추운·권인기, 「남북철도 복원에 따른 중·러·몽골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와 효과」, 『지리학 연구』 35: 3, 국토지리학회, 2001.
- 유충걸, 「두만강 하류지역의 자연자원과 이용」, 『북한』, 북한연구소, 1993.
- 윤호량, 「선조 16년(1583) '尼湯介의 亂'과 조선의 대응」, 『군사』 82, 2012.
- 이기석, 「러시아 극동 경제특구 지역의 입지특색에 관한 연구」, 『러시아연구』 2,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992.
- 이기석·남영, 「다분광 TM 영상 변환기법과 감독 분류 정확도 비교연구: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국측지학회지』 17: 3, 한국측지학회, 1999.
- 이기석·이옥희·류충걸, 「두만강 하류의 지역구조 연구」, 『지역연구』 31: 4,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994.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 특색: 현장답사를 중심으로」, 『地理教育論集』 44, 2000.
- 이기석·이옥희·최한성·김종범·남영·안재섭, 「두만강(도문강) 유역 토지자원 종합평가」, 『지리·환경교육』 7: 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99.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남영, 「나진-선봉 경제 무역 지대의 입지특성과 지역구조」, 『대한지리학회지』 37: 4, 대한지리학회, 2002.
- 이상훈, 「임진왜란 전 이순신의 행적과 가문의 상황-1588년 발급 「別給文記」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1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 이옥희, 「중계수송기지로서 나진-선봉의 입지특성」, 『이화지리총서』 10, 2000.
- 이옥희,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9: 3, 대한지리학회, 2004.
- 이왕무, 「조선시대 녹둔도(鹿屯島)의 역사와 영역 변화」, 『정신문화연구』 34: 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 李旺茂, 「고종대 한러관계의 구축과 『俄國輿地圖』의 제작」, 『한국학논총』 42,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 이 옥, 「17~18세기 犯越사건을 통해 본 함경도 주민의 경제생활」, 『韓國史學報』 20, 한국사학사학회, 2005.
- 李源明, 「조선중기 鹿屯島 확보와 北兵使 李鎰에 관한 일고찰-『壯襄公全書』(1893)를 중심으로」, 『白山學報』 83, 白山學會, 2009.
- 李源明·박상진, 「장양공 이일(李鎰)장군 연구 『국역 '장양공전서』(國譯 '壯壤公全書')」, 국학자료원, 2010.
- 이재호, 「〈壯襄公征討時錢部胡圖〉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임철호, 「훈춘시 토지자원구조 조절연구」, 『지리학연구』 20, 국토지리학회, 1992.
- 장정수, 「선조대 대여진(對女眞)방어전략의 변화 과정과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 정인섭, 「統一 後 한러국경의 획정」, 『서울국제법연구』 14: 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 정호섭, 「고구려 특별전과 남북 문화교류」, 『고문화』 6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006.

정태홍, 「북방국경선과 녹둔도」, 『박물관지』 4, 충청대학 박물관, 1995.

제장명, 「조선시대 백의종군 사례와 이순신의 백의종군」, 『이순신연구논총』 1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1.

하문식,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정신문화연구』 10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4일까지 심사하고,
2020년 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Study on the Joint Investigation Plan betwee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Russia on the Northern Relics of Admiral Yi Sunsin

Baek, Jong-oh*

This article presents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methods such as earth surface and excavation investigation for the joint investigation plan of the northern relics of Admiral Yi Sunsin, and then approaches the practical method for the South-North-Russia joint investigation by examining the trends of the North-South joint investigation and Korea-Russia excavation investigation.

The northern relics of Yi Sunsin are distributed around the Tumen River estuary. Representative relics include Donggubibo(董仇非堡) of Samsu(三水), Geonwonbo(乾原堡) of Kyongwon(慶源), Josanbo(造山堡) of Kyonghung(慶興), and Nokdundo(鹿屯島) in Hamgyong Province. Also includes are Namsan Bongsu, Durisan Bongsu, Bulamsuho, Gobongsuho, Gojosansuho, and Hadansuho, which are Bongsu(烽燧, beacon fire) and Yeondae(煙臺, beacon fire stand) belong to Josanbo. Gyeongheungjin(慶興鎭), Seosurabo(西水羅堡), Muibo(撫夷堡), Aojibo(阿吾地堡), Asanbo(阿吾地堡), Anwonbo(安原堡), and Gyeongwonjin(慶源鎭), which are the neighboring Jinbo(鎭堡), are also subject to further study.

Among these, Nokdundo and Josanbo at the estuary of the Tuman River are historical sites where Yi Sunsin defeated the invasion of the Jurchen(女眞) before the outbreak of the Imjin War. It is a land of sorrow because Joseon lost it due to the Convention of Peking in 1860. Therefore, the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the northern relics of Yi Sunsin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ep for more concrete restoration of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Nokdundo and Josanbo.

Existing joint investig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re insufficient except for the excavation of Goryeo Palace Manwoldae in Kaesong. Existing Korea-Russia excavations focus only on the Balhae relics in the Maritime Province, lacking temporal and spatial diversity.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joint investigation on the northern relics of Yi Sunsin allows meaningful results in terms of cultural exchange and academic work because it targets the common national heroes

* Professor, School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irector of Jungwon Research Institute.

of the two Koreas. Future joint investigation needs to conduct descent investigation and exploration trench in accordance with the agreed investigation manual for related relics such as earthen fortress of Nokdundo, Josanbo and Seungejeondae(勝戰臺).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establish a separate medium-and long-term plan and conduct annual excavation investigations after figuring out the whole aspect of the relics.

A more realistic way to accomplish a joint investigation on the northern relics of Yi Sunsin, is to start an excavation investig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then a Russian investigative group invite North Korean archaeologists to the excavation site to achieve “the South-North-Russia joint investigation of the northern relics of Yi Sunsin”. In particular, the joint investigation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concili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llowing the previously conducte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Furthermore, if the project is expanded to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through Russia,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foundation for Northeast Asian peace community.

[Key Words] Yi Sunsin, Nokdundo(鹿屯島), Josanbo(造山堡), Tumen River, Hamgyong Province, Northern Relics, Joint Investigation